

전주시, 드론 제조업·유통업 육성 본격화

올해 드론기업 지원허브 구축·박람회 개최 정부 예산 확보 차세대 드론메가시티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한 전주시가 올해도 드론 제조업 및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주시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드론기업 지원허브 구축 연구(2억원)와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개최(3억원)를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시는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끌어가는 차세대 드론 메가시티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고, 오는 2025년 전주드론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반도 다진다. 이는 세계 최초로 드론 스타트업과 창업 육성, 관련 기업 육성 등 드론산업 혁신성장 지역거점 구축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로 '드론기업 지원 허브 구축 연구'를 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드론산업 규제 혁신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드론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관련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드론밸리 기업지원허브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기획됐다.

시는 향후 드론기업지원허브에 사무실과 공용실험실, 드론 실내 실험장 등 창업 공간과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고, 드론 스타트업과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지원,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무·법률·특허·마케팅 등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드론기업지원허브가 구축되면 드론산업 혁신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3D프린팅·ICT 등 전주 시 신성장전략산업의 이슈선점과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드론산업 국제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국제박람회 개최를 통해 드론 등 신성장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세계 최초로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 ICT기술을 융복합해 드론



전주시가 올해도 드론 제조업 및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이어간다. 드론월드컵 경연 모습. <전주시 제공>

축구라는 신개념 레저스포츠 아이템을 개발·보급, 현재 전국에 16개 지부가 생겨나고 유소년팀을 포함한 220여개 팀이 창단됐다.

또 영국과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등 해외 4개 국가에도 선수단이 창단되는 등 '2025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반도 다져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사)대한드론축구협회가 정식허가·등록

돼 공식 출범하는 등 세계적인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도 갖춰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드론산업 혁신성장 지역거점 구축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와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주시가 차세대 드론산업의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담양 대나무축제·진도 바닷길 축제·보성 다향축제 문광부 '최우수 축제' 선정...국비 지원도

담양대나무축제 등 전남 3곳의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전국 41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 총 7곳이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담양대나무축제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보성 다향대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이름을 올렸다.

대나무를 소재로 한 친환경 축제를 표방하는 담양대나무축제는 2012년부터 5년 연속 우수축제로 뽑혔으며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지난해 개최된 제20회 축제에서는 담양 지방 천년과 대나무축제 20주년을 맞아 대나무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대나무 역사문화퍼레이드와 대나무축제 20주년 기념관을 운영했다.

진도 바닷길 축제는 조수 간만의 차로 2.8km 길이의 바닷길이 열리는 자연의 신비함을 살려 수준 높은 전통 민요·민속 공연까지 어우러지면서 2014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성다향대축제는 찻잎 따기·차 만들기·차 마시기 등 킬러콘텐츠를 보강하고 야간에 고즈넉한 공원에서 차를 즐길 수 있는 '월인천강 찻자리'가 호응을 얻으면서 최우수축제로 뽑혔다.

이들 축제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각각 1억7000만원의 국비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마케팅 등 간접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한국관광 100선' 4회 연속 뽑혀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비 후보를 정하고 현장 평가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00선을 선정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다.

4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경주 불국사와 전주 한옥마을, 한라산 등 전국 23개소 밖에 없다.

이런 선정으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2019 내내여행 박람회에 참가자격과 홍보 팸투어단 방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며, 한국관광 100선 지도와 기념품이 전국의 관광안내소에 배포된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발돋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로 본다"며 "기차마을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 감사장 받아

정읍경찰 현장대응 기여 공로

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로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

통합관제센터는 정읍시 일원 251개소에 설치된 606대의 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센터는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280여건의 범죄관련 영상을 제공해 범죄예방과 검거에 기여했다.

이 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18억7000

만원이 투입돼 개설했으며 부서별로 설치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관제하고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설치 후 생활 방법과 범죄 차량 추적, 어린이·노약자 보호, 시설안전 관리, 화재·재난·산불 감시 등의 관제 업무로 안전사회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정읍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를 예방,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낡은 주택 신축 맨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고창군은 낡은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가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융서비스는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량·보수를 통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또는 귀농·귀촌 예정자다.

군은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에 대한 금리를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 지원된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건축시 용자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하는 가구주는 건물 신축 토지 확보, 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남원시, 신생아 유모차 구입비 10만원씩 준다

남원시가 올해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유모차 구입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남원지역 업체에서 유모차 대신 1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유아용품도 사도 된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유아용품점에 제출하면 된다.

넷째 아이 이상에게 주던 카시트 구입비

25만원도 셋째 아이부터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임신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구례군, '납세자 보호관 활성화 평가' 대상 수상

특별교부세 6000만원 받아

구례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납세자 보호관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 신설된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기 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를 심사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7월 2일 기획예산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를 찾아 감면신청을 안내하고, 잃어버린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했다.

세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과 토론회를 했으며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전 직원 교육, 읍면 이장 회의 설명회, 농업대학 수강생 교육, 마을 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이동상담소 등을 운영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150평~200평 개별 매매 가능
- 주인직매. 010-2680-8685